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 5년…기업도시 무안 서삼석 군수 격정 인터뷰

"한국 정부, 중국 미래 가치 너무 모른다"

"5년간 26차례 중국 오가며 대륙자본 끌어와 中 투자 못해 안달인데 정부는 뒷짐만 져서야"

"그동안 중국을 오가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반드시 한·중 산단 사업을 잘 마무리해 무안 발전, 더 나아가 전남도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 7일 집무실에서 만난 서삼석 무안군수는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 국제산업단지 성공 개발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5년 동안 쌓아온 중국인들과의 신뢰가 한·중 산단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군수는 한·중 산단 개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늦어진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내 정부 관료와 기업인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현실과 미래의 가치를 너무 모른다"면서 "땅과 노동력, 자본이 풍부한 그들이 왜 한국 무안으로 오려고 애를 쓰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중 국제산단은 단순한 기업도시가 아닌, 한·중 교류 이후 대규모 한·중 경협 단지 조성과 이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에 큰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 군수와 무안군청 직원들은 지난 5년 동안 중국 대륙과 국내를 돌며 투자유치에 안간힘을 쏟았고, 그 결과 중국의 거대 자본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서 군수와 무안군청 관계자들이 한·중 산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오간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총 26회. 거리로만 1만여 ㎞에 달한다. 중국 상하이, 북경, 중경 등 중국 대륙을 오가며 중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서 군수는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갑작스런 미팅 제의가 오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비행기에 몸을 싣는 일이 다반사였다. 신뢰를 잃어서는 안되는데다 가능하면 무안군이 중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대개 중국 일정은 2박3일 정도. 그래서 서 군수의 집무실에는 여행지에서 3일 가량을 보낼 수 있는 개인 짐이 항상 꾸려져 있다. 중국 투자 유치 성사를 위해 사실상 24시간 대기였던 셈이다.

중국을 제 집 드나들 듯 다닌 탓에 중국과 한국 공항에서 가끔 보따리 장수로 오해받기도 했다.

중국에서의 일정은 대부분 중국 기업인과 관료들을 만나는데 할애했다. 특히 회의는 보통 마라톤 회의가 대부분이었다. 중국인들의 꼼꼼한 성격 때문이다. 얼마나 꼼꼼한 지, 서류 하나 꾸미는데도 변호사를 대동한다. 문자 하나하나를 세밀히 살피고, 보통 밤 12시가 넘어 끝나는 회의가 많았다. 그래서 중국을 그렇게 드나들었지만, 아직까지 북경의 천안문 한번 보지 못했다. 중국인들이 무안을 방문할 때는 더욱 힘들었다. 무안군의 경우 호텔 등 숙박시설이 변변치 않은데다 고급 레스토랑도 없어 손님 접대(?)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탁문화를 즐기는 중국인들을 위해 식당에 테이블을 설치하도록 했고, 도로와 간판에는 중국어도 병기했다.

한번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무안 산낙지를 소개하면서 한 입 덥석 넣었는데, 중국인들이 기겁하는 것이었다. 생식을 하지 않는 중국인들에게는 가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중국인들도 무안에 오면 '산낙지'를 찾는다고 한다.

지난해 쓰촨성 대지진 때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운동을 통해 7만 달러를 모아 중경시에 전달하면서 중국 정부와 무안군과의 신뢰는 더욱 확고해졌다.

한국 기업 유치 과정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였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은 시골 군수의 투자유치 발걸음을 '주눅' 들게 했다.

기업 '오너'를 직접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담당자 만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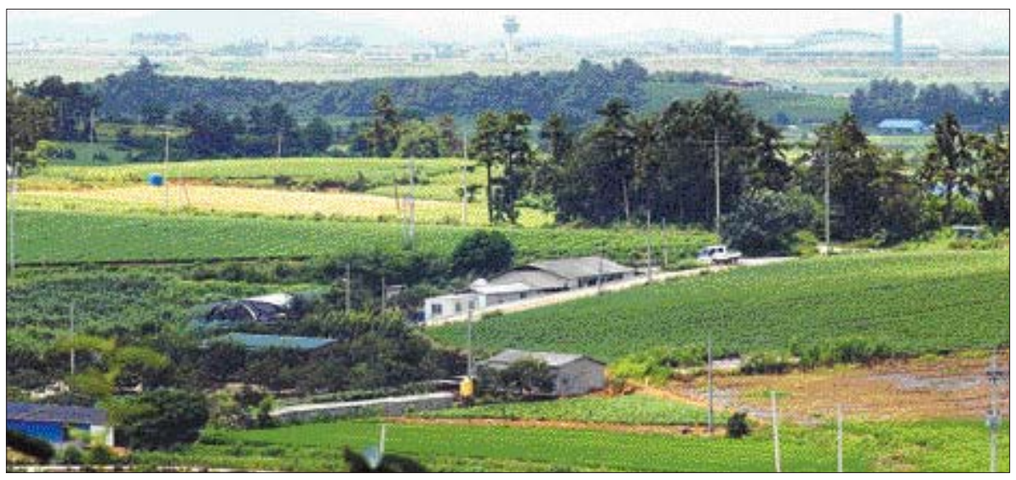
간신히 담당자와 약속이 되더라도 사무실로 찾아가 2~3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였다.

그래도 서 군수는 직접 발품을 팔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모두 찾아다녔다. 서 군수가 접촉한 기업은 건설·금융 등 150여 개 업체에 이른다.

서 군수는 "숱한 역경 속에서 한·중 산단 개발 사업의 기틀을 만들어 낸 만큼 반드시 성공하게 할 것"이라면서 "특히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다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늦어지면서 일부에서 사업이 실패했다느니, 중국이 자본금을 빼내 갔다느니 하는 악성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면서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로 생각하고 지역민들이 조금만 여유를 갖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국과 무안군이 함께 개발할 무안 기업도시 내 한·중 국제산업단지 건설 예정부지. 경기도 분당 규모, 여의도 2배에 달하는 1천173만㎡ 규모다. 뒤로 무안공항이 보인다. 〈광주일보 DB〉

中 정부 "한·중산단 투자 늘리겠다"

해외경제협력구 지정 기업 진출도 적극 지원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 국제산업단지는 한국과 중국의 교역 중심지이자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무안 한·중 국제산단을 해외경제협력구로 지정하고, 중국 기업의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진출 전진기지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中 정부, "투자비율 늘리겠다"=무안군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을 주요 직접 투자 대상 국가로 지정할 만큼 중국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밝혔다.

애초 한·중 산단 개발에 필요한 PF 자금 1조4천억 원 중 8천900억 원을 중국 측이 맡고 나머지 5천100억 원은 한국 측이 조달하기로 했다. 중국 국책은행인 중국개발은행이 맡아 8천900억 원의 PF자금을 마련했으나 한국 측이 조달해야 하는 5천100억 원은 국내 금융권의 투자경색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이 한국 측 투자금 5천100억 원의 일부를 부담해 한국 측 투자사들의 부담을 낮춰 PF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국내 시행사들의 투자가 힘들어 중국 측에서 PF투자비율을 높이겠다는 제의가 들어왔다"며 "국내 시행사 투자지분은 축소하지 않고 PF투자비율만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총 협의만 거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현재 PF 투자비율을 전체 PF의 70% 이상으로 늘리는 안도 내놓았으며, 실제로 한국 측 투자 주간사인 농협과 중국개발은행이 6일 만나 중국 PF투자비율 확대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중산단 개발계획에 적극적인 중국이 PF투자비율 높일 경우 난항을 겪는 PF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져 보상·이주, 실시계획 승인 등 향후 추진계획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中, 왜 무안 선택했나?=중국은 한·중 산단을 해외경제무역협력구로 지정했다.

해외경제무역협력구로 지정된 곳에 입주한 중국 입주 기업에는 각종 자금 및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중국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한국에 산업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한국의 앞선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세계 주요국 중 대규모 차이나타운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이 무안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입지 요건 때문이다. 무안 일대가 대부분 농지라 토지 확보와 땅값이 싼데다 서남권에서 유일하게 국제공항(무안국제공항)이 있어서다.

중국 정부의 구상대로 2025년 무안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한국 근로자들은 중국 기업에 취직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은 '메이드인 코리아'의 상표를 달고 일본 등 세계 각지로 팔려나가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중 산업단지개발에 대한 무안군 및 정부 부처 입장

무안군청	"토지공사 및 농어촌공사 등 정부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국책사업으로 해달라"(정부에 건의)

↕

각 부처	입장
국무총리실	"이 사업과 관련한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 없다"
국토해양부	"이미 세제·규제완화 등 정부 지원 해줬다. 자금 모집 안 된다고 정부가 나서달라는 것은 용납 못해"
지식경제부	"민자 사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외국자본 유치하는 경우 없다.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알아서 해야"

한·중 산단에 투자의사 밝힌 주요 중국 기업 (자료:무안군청)

투자주체	유치업종	면적	투자금액
산둥성상업집단	산둥성국제회의센터	17만㎡	5억달러
산둥성삼특병원관리	종합의료단지	33만㎡	1.5억달러
황회해투자지주집단	IT산업단지·자동차부품단지	각각 33만㎡	5억달러
제남행림생물기술	한약제 표준화 유통단지	33만㎡	1억달러
산둥성상업단집단	국제명품아울렛단지	33만㎡	4억달러
북방통화지주	국제대학단지	231만㎡	-